시끌벅적 e-스타

네티즌들 관심은 온통 '손가락놀이 UCC'

(사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

네티즌들은 요즘 무슨 UCC(사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가 인기를 끌고 있는가에 관심이 크다. 한 번 입소문을 탄 UCC는 하루에 수만명이 보는 '대박'을 터뜨리고 파급력도 엄청나다. 그렇다면 최근 네티즌들이 UCC 제작에 활용하는 인기 도구는 뭘까. 직접 만들기 때문에 소재가 다양하고 고정 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많지만 가장 뜨는 것이 '손가락'이다.

손가락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볼펜 돌리기.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놀이를 네티즌들이 놓칠 리 없다. 다양한 볼펜 돌리기 동영상 UCC로 제작,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가운데 손가락 첫 마디만 구부려 볼펜을 들어올리는 UCC도 있다.

손가락으로 보드를 타는 UCC도 인기다. 이른바 '핑거보드'다. 두 개나 세개의 손가락이 4개의 바퀴가 달린 작은 보드 위에서 현란한 묘기를 선보인다. 손길이 닿은 보드는 쌓아놓은 책 등 장애물 위로 점프를 하기도 하고, 360도 회전을 하기도 한다. 스케이드 보드를 10㎝내외로 축소했을 뿐 바퀴 숫자나 선보이는 기술 등도 실제 스케이트 보드와 똑같다.

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부드럽게, 때로는 경쾌하게 움직이는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잇따라 댓글을 올리고 퍼나른다.

이외 양손을 서로 부딪치거나 모아 소리를 내거나 책상을 두드려 드럼 소리를 흉내내는 '핸드 드럼'동영상, 손가락으로 카드나 동전 돌리기, 축구공 트래핑 동영상도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㊷ 가능한 자주 시선을 맞추자

단순한 만남을 사랑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시각적 접촉으로 호감을 주고받는 단순한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은 같은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고 있으면 점점 눈에 익숙해지고 호감을 느끼게 된다.

상대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단지 몇번 보는 것만으로 친숙함이 솟아나오고 그것이 정으로, 사랑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때론 우연처럼 때론 필연처럼 상대와 마주칠 기회를 자주 만들자.

또 대화를 시작하거나 둘이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해는 깊어지고, 상대를 잘 알면 알수록 호감은 깊어지기 마련이다.

심리학자인 보울비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정이 깊어지기 위한 3가지 요소는 미소(Smile), 시선(Sight), 피부의 접촉(Skinship)이라고 한다.

이 첫글자를 따서 '3S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화를 내거나 고함 지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초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글생글 미소 짓고 바라보는 사람 곁에선 온화해지게 마련이다.

단순한 감정은 두 배의 플러스 효과로 전달된다.

상대와 얘기할 때는 가능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또 웃을 때 상대의 등을 가볍게 친다거나 길을 걸을 때 살짝 팔을 잡아보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터치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다.

3S의 법칙을 이렇게 활용하자. 3S 중에서도 가장 쉽지 않은 곳이 스킨쉽이다.

자칫 상대가 의도를 눈치채서 섣불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은 스킨쉽조차 망설여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접촉이 아니어도 효과는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커피나 우유 등을 건네줄 때 손가락끼리 마주친다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손으로 부드럽게 털어주는 등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터치만으로도 오케이다.

이런 작은 시도를 우선적으로 해보자. 또 시선을 맞추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무언의 사인. 말을 걸고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눈을 맞춰보자.

단 남자는 자신이 듣는 쪽일 때 시선을 맞추기 쉬운 편이므로 얘기할 때 당신의 눈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느 때든 가만히 그를 바라봐주는 게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눈을 맞춰보자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
(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뉴스퀴즈

47.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특별 담화를 통해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제 임기를 바꾸자고 밝혔는데, 지난 87년 개헌 이후 20년 만에 권력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요.

① 4년 연임제 ② 5년 단임제
③ 7년 단임제 ④ 8년 연임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8일(음 11월 30일 壬子)

子 36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간다. 48년생 가정의 힘은 식탁에서 나온다. 60년생 방풍림은 여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72년생 가계는 국가 경제로 통한다. 84년생 파도가 높으니 대고가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08, 37

丑 37년생 좋은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 49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61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 73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85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라. 행운의 숫자 : 09, 36

寅 38년생 욕심은 화를 부르니 소탐대실 하지마라. 50년생 모든 일에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62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74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루어지리니. 행운의 숫자 : 07, 40

卯 39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 51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63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있는 대화와 사랑스런 자녀를 살펴보라. 75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5

辰 40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2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검토는 자세하게 해야 하리라. 64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6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라. 행운의 숫자 : 14, 38

巳 41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난다. 53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결정 난다. 77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겉과 속이 꽉 찼다. 행운의 숫자 : 17, 29

午 42년생 구사가 괴롭히나 큰 일은 아니다. 54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에까지 소란사로 변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66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하리라. 78년생 착실한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45

未 43년생 삼사일언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55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정이 솟아난다. 67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79년생 애인이 불안하다. 행운의 숫자 : 0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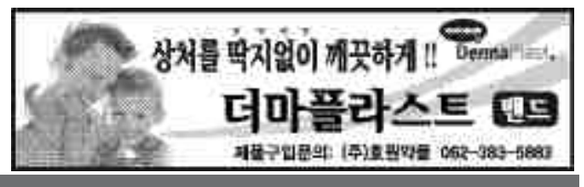
申 44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 56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8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80년생 자신과 가정,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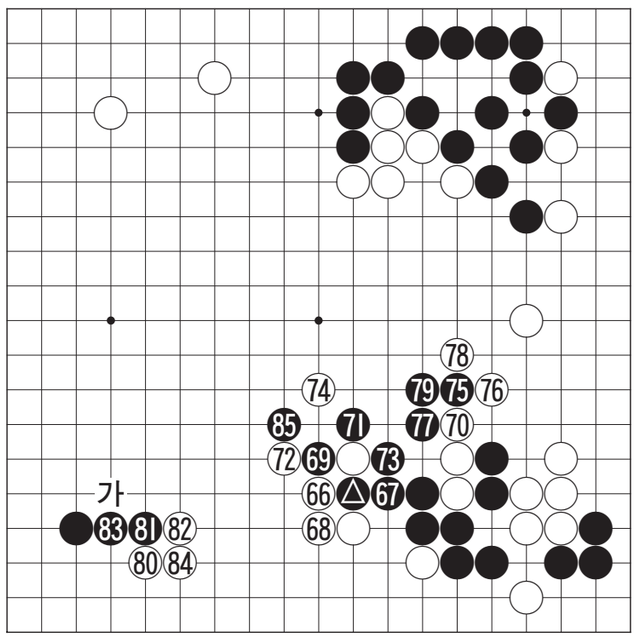
酉 45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57년생 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 69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81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 32

戌 46년생 제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58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70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2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4, 45

亥 47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59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 71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83년생 신규 사업이나 사기문서에 속상할 일이 생길 수니 올바로 처신하면 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2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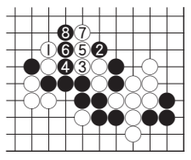


제2회 전남도지사배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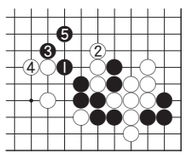
흑, 이대로 가면 진다 6보(66~85)

白 홍석의 6단 〈목포시〉 黑 김종민 6단 〈해남군〉

흑 ▲는 69로 끊기 위한 공작. 백이 '참고도1'의 백 1로 는다면 8까지 돌파하려는 달콤한 생각이다. 그러나 홍석의 6단이 이같은 상대의 주문을 모를리가 없다.



〈참고도 1〉



〈참고도 2〉

백 70으로 늘어 한점을 가볍게 버리고 74로 봉쇄해 오니 답답해졌다.

또 68, 72로 하변을 굳혀준 것도 좋지않았다. 흑 ▲로는 역시 '참고도2'의 흑 1로 붙이고 5까지 진출해야 했다.

흑 75의 맥점을 구사한 다음 79로 이어서 수습에는 성공했으나 홍 6단이 백 석점을 가볍게 보고 80으로 걸쳐간 것이 좋은 감각으로 발빠른 수였다.

'이대로 가면 진다'는 생각이 김종민 6단을 짓누른다.

그래선지 흑 81로 붙이고 83으로 이어 백이 '가'로 눌러오는 수를 방지한 다음 85로 젖혀나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日가토게이코, 中정옌 꺾어

일본의 가토게이코 5단이 17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정관장배 여자바둑최강전 2차전 제9국에서 정옌 2단을 200수 만에 백 불계로 꺾었다.

일본의 만나미 카나 3단, 한국 박지은 6단을 연파하며 3연승에 도전했던 정옌 2단은 이날 초반 포석을 그르치면서 무릎을 꿇었다.

가토 게이코의 승리로 일본은 4승째를 기록, 단독 선두에 올랐다. 이민진 5단은 18일 가토게이코 5단과 격돌한다. 이 대회 3라운드는 중국 광저우에서 오는 3월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대회 우승상금은 7천5백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22>

How do you like this car?

이 자동차 어때요?

A:**How do you like this car?**
B:I like it. But I think it's probably too expensive.
A:Don't worry about that. I'm sure we can get you a great deal.
A:Thanks. You're a best salesman.

A:이 자동차 어때요?
B:맘에 드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네요.
A:그 점은 걱정 마십시오. 손님께 좋은 거래를 해 드릴 수 있거든요.
B:고맙군요. 정말 멋진 세일즈맨이시군요.

How do you like~? : ~은 어때요?
a great deal : 맘에 드는 거래, 쏠쏠한 거래
worry about· : ~때문에 걱정하다
응용표현
- I'm sure we can make it up to you.
분명, 저희는 귀하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822>

なんで遅(おく)れたの?

왜 늦었어?

A:ごめん。遅(おく)れて。
B:**なんで遅(おく)れたの?**
A:別(べつ)にいいじゃん。
B:遅(おく)れといて なに逆切(ぎゃくぎ)れしてんの?

A:미안해 늦어서
B:왜 늦었어?
A:뭘 어쩌라고
B:네가 늦게 와놓곤 화내는 거야?

しているの〉してるの〉してんの
회화체에서는 축약해서 사용하죠. ておく를とく로 사용하는 표현을 살펴보세요
遅(おく)れて〉おくれといて : 늦어놓고
考えておいて〉考えといて : 생각해놓고
食べておいて〉食べといて : 먹어놓고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3>

你们饭店最好吃的菜是什么?

이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는 무엇입니까?

A : 请坐。.....请喝茶!
qǐngzuò qǐnghēchá
청 쭈오 칭 흐어 차

B : 谢谢!
xièxie
시에시에

A : 来点儿什么?
lái diǎnr shénme
라이 디알 선머

B : 小姐, 你们饭店最好吃的菜是什么?
xiǎojiě nǐmenfàndiàn zuìhǎochīdecài shìshénme
시아오지에 니먼판띠엔 쭈이 하오츠더차이 스선머

A : 糖醋鱼。
tángcùyú
탕 추 위

A : 잠깐 앉으세요..., 차도 드세요!
B : 감사합니다.
A : 뭘 좀 드릴까요?
B : 여기요,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는 무엇입니까?
A : 탕수어입니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40>

馬耳東風 (마이동풍)

말 마, 귀 이, 동녘 동, 바람 풍

마이동풍(馬耳東風)은 '쇠귀에 경(經) 읽기'와 같은 말이다. 말 귀에 봄바람이 불어도 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남의 의견이나 충고의 말을 흘려듣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 또 무엇을 듣든 관여치 않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말은 당나라의 이백(李白)이 왕십이(王十二)가 보낸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들며 수심에 잠긴다'(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라는 시에 화답한 장편(長篇)의 오언고시(五言古詩)에 나온다. "당신은 북창(北窓)이 있는 방에서 시부(詩賦)를 짓고 있으나, (모처럼 걸작을 발표하더라도) 일만자(一萬字)가 한잔 술만도 못하네. 세상 사람들은 그 시부를 들으면, 모두 머리를 갸우뚱하며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네. 그것은 마치 봄바람(東風)이 말 귓전에 부는 것과 같구나(有如東風射馬耳)."

이백은 위의 시에서 불우하여 쓸쓸히 지내고 있는 자신이나 왕십이가 지은 시부가 비록 세인(世人)들에게 마이동풍에 지나지 않으나, 그래도 부박(浮薄)한 세상에 출세하려고 날뛰지 말고 오직 시부 짓기에 노력하자는 고매한 뜻을 표현하고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